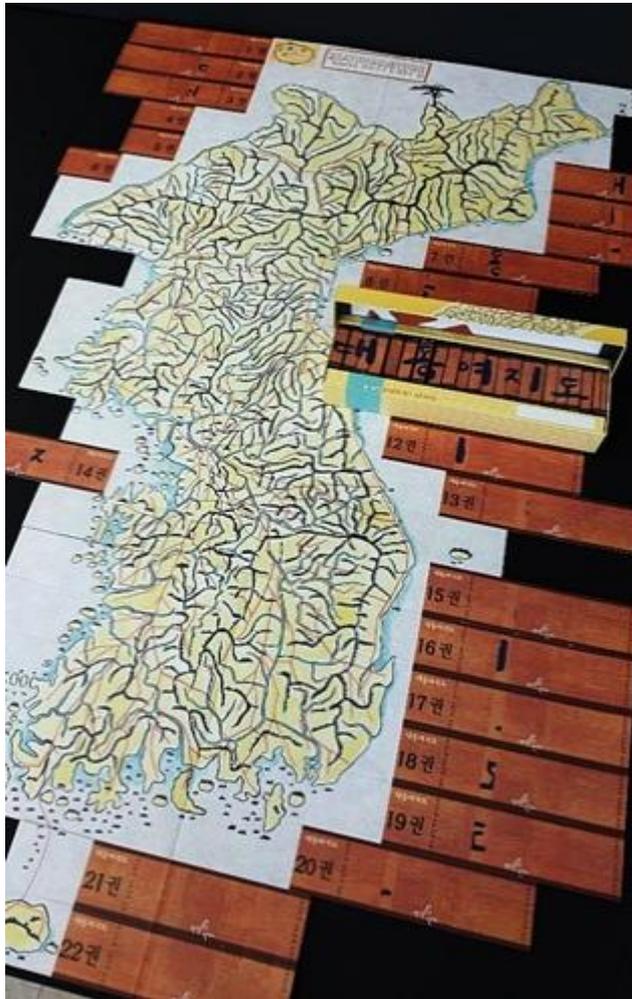


생각날기 김정호 대동여지도 방과후 역사수업 교구

“역사 유물 만들기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방과후 수업 교구”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는 어떤 지도인가요?



대동여지도는 조선시대 말 **김정호**가 **실학의 영향을 받아** 그린 한반도 지도로 전체를 펼치면 세로 약 6.7미터, 가로 약 3.8미터로 무척 큰 지도예요.

대부분 대동여지도가 한 장으로 된 지도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김정호는 '대동여지도'를 만들면서 이 지도 책이 **관리들에게나 일반 백성들에게나 모두 쓸모 있는 자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제 땅의 크기를 일정한 비율로 줄여 목판에 새겨 인쇄할 수 있도록 했어요.** 직접 종이에 그림을 그리면 많은 시간을 들여도 하나의 지도만 완성되니 귀해서 아무나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목판에 새겨서 인쇄하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지요.** .



목판 하나의 크기는 가로 43센티미터, 세로 32센티미터 정도로 이를 모두 이어 붙이면 무척이나 큰 지도가 돼요. 그러니 너무 커서 보관하기도 힘들고 들고 다니기도 힘들겠지요?



그래서 세로로 22단으로 나누어 22첩의 책으로 만들었어요. 병풍처럼 가로로 이어 만든 지도 책은 필요한 부분만 골라 쉽게 들고 다닐 수 있어서 이용하기 편리했어요.

대동여지도는 김정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일생이 바쳐진 지도로 우리나라 실제 모습과 아주 비슷해서 한 사람이 그렸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확한 지도예요.
생각날기에서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를 직접 만들어보도록 역사 체험물 재료를 판매해요.

02. 생각날기 역사 체험물인 대동여지도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생각날기에서 판매하는 대동여지도 재료예요.



이것을 모두 펼치면 세로 90.3cm, 가로 50.8cm의 대동여지도가 돼요.
 펼쳐진 지도를 원하시면 큰 종이나 폼보드에 대동여지도를 펼쳐서 붙이시면 돼요.



한 첩의 크기는 세로 4.2cm로 동일하지만 가로 길이는 모두 달라요.

한 장의 대동여지도

22첩의 대동여지도 책.

이렇게 두 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다 보니 종이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생긴 현상이랍니다. ^^!



한 첩의 책을 접으시면 가로 23.5cm, 세로 7.3cm, 폭3.7cm 크기의 책이 완성돼요.

총 22첩의 책을 완성할 수 있으며 대동여지도가 한 장의 지도가 아닌 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접은 책자는 가로 23.5cm, 세로 7.3cm, 폭3.7cm 크기의 상자를 만들어 보관하시면 돼요.

03-생각날기 역사 체험물인 대동여지도는 이렇게 만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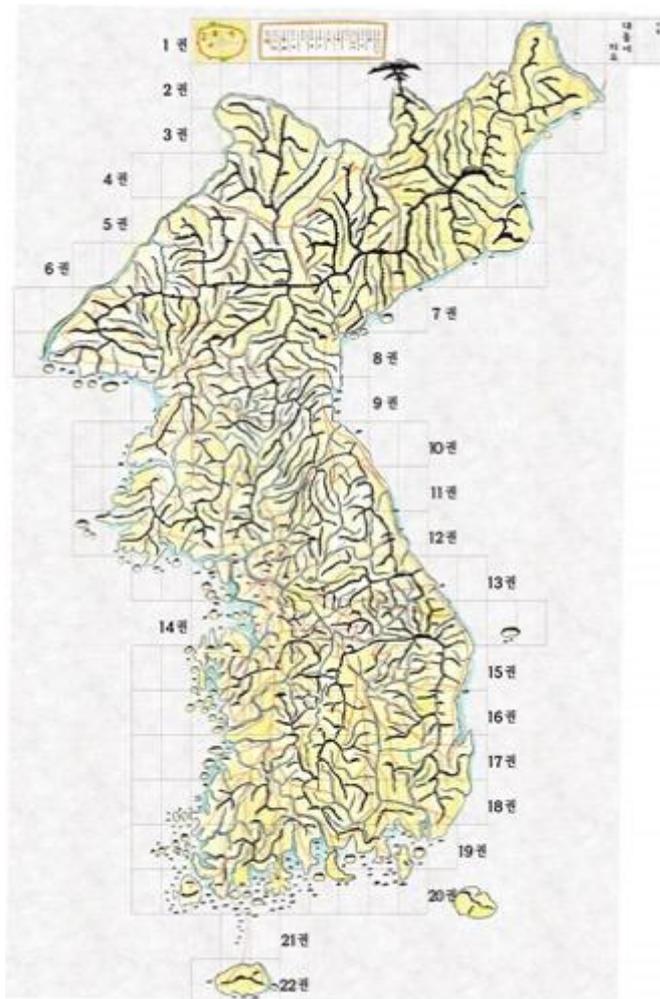
생각날기 홈페이지에서 대동여지도 만들기 동영상을 볼 수 있어요.

1. 생각날기 홈페이지에서 지침서를 클릭하세요.
 2. 체험물만들기 메뉴를 클릭하세요.
 3. 역사유물만들기_대동여지도 를 클릭하면 만들기 영상을 볼 수 있어요.
-

04-완성한 대동여지도를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요? -역사퀴즈

22단으로 되어 있는 대동여지도예요.

대동여지도를 잘 살펴보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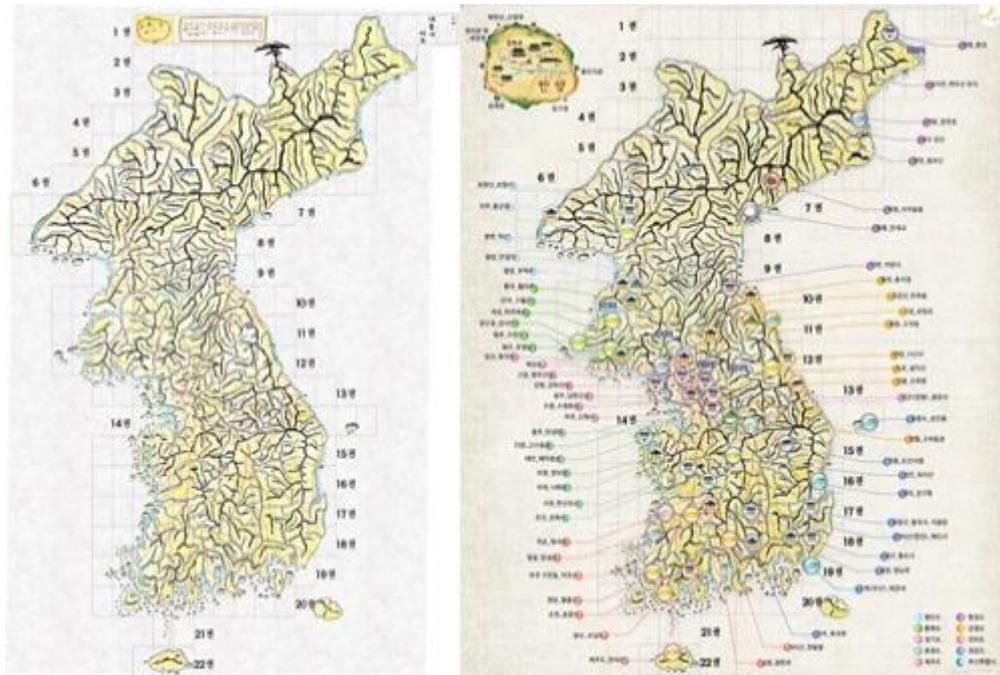


1. 대동여지도에는 **백두산**이 나타나 있어요. 백두산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이 만든 지도에서 찾아서 그곳에 이름을 적어보세요.
2.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백두산을 가려면 몇 권의 지도를 들고 가면 좋을까요?
3. 여러분이 만든 지도에 백두산으로 가는 길을 표시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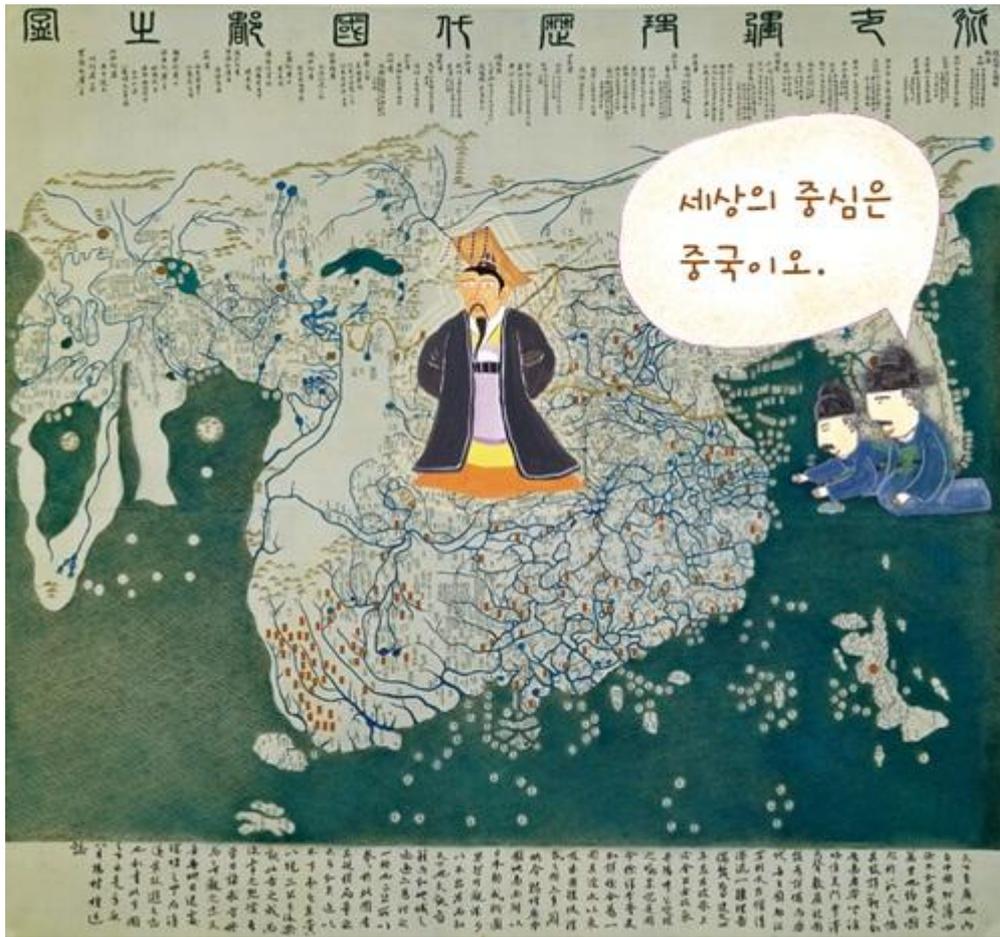
[활용팁!!]

대동여지도 각 책에 속한

지역이나 명승지가 궁금하시다면 생각날기에서 출시된 남승도 게임 뒷면과 비교해서 보세요. ^^



05-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볼까요?



조선 전기에 그려진 세계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를 보면 중국 중심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나 실학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우리 눈으로 제대로 된 세상을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런 실학의 영향을 받아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를 만들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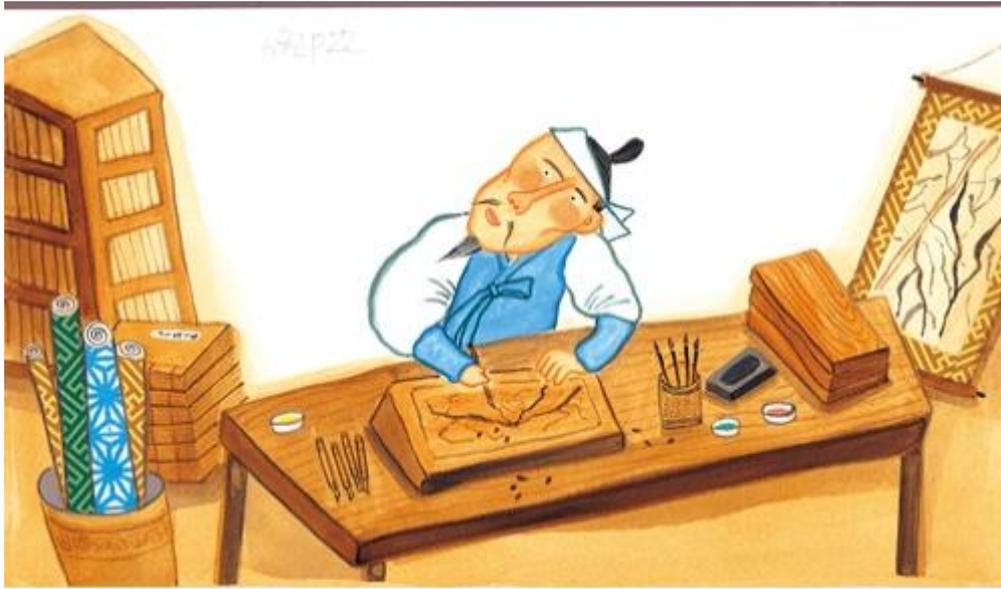
지도를 보면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산줄기는 산의 크기나 높이에 따라 굵기가

다르게, 강줄기는 구불구불한 두 선으로, 길은 쪽 뺨은 직선으로 표시했어요. 길에는 십리마다 점을 찍어서 거리도 가늠할 수 있게 하였어요.

지도표 Legend of Daedongmyeojido

- 읍치邑治**
읍치는 각 지방행정 단위의 중심지로 전국에 330여 개가 있었다. 읍성邑城이 있으면 쌍원 〇으로 표현하고, 동그라미 안에 고을 이름을 적었다. 각 행정단위의 경계는 점선으로 표현하고 도내 경계는 따로 표현하지 않았다.
- 역참驛站**
여행하는 관리에게 말과 숙식을 제공하며, 공문의 전달과 관물官物의 수송을 담당한 기관
- 성지城地**
산성山城과 관성關城
- 목소牧所**
관영牧場
- 창고倉庫**
관영창고
- 능침陵寢**
왕과 왕비의 무덤
- 고진보古鎮堡**
옛 진과 보
- 고산성古山城**
옛 산성
- 영아營衙**
군영軍營의 관아(오늘날의 군사령부)가 있던 곳이다. 각 도에 배치된 병영兵營(오늘날의 육군 지역사령부)과 수영水營(오늘날의 해군 지역사령부)이 표시되었다.
- 도로道路**
10리마다 방점을 찍어 거리를 나타냈다.
- 진첩과 보堡**
지방의 군사기지로 영아를 나타낸 기호에 비해 크기가 작다. 성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각형을 겹쳐 표현하였다.
- 봉수烽臺**
불이나 연기로 외적의 침입 등 긴급사황을 알리는 통신 시설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호를 만들어서 사용했어요. 큰 고을은 〇, 창고는 ■, 군대 주둔지는 ○, 산성은, 등의 기호를 쓰니까 필요한 곳을 빨리, 그리고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상인들이 여러 곳에 장사하러 다닐 때도 많이 이용되었고, 서양 세력과 싸울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어때요?

대동여지도에 대해 공부하니 김정호와 대동여지도가 달리 보이지요?

대동여지도의 위대함을 좀 더 느끼기 위해 퀴즈를 풀어볼까요?

김정호는 대동여지도를 그릴 때 강줄기는 구불구불한 두 선으로 그려 넣었어요. 지도에서 낙동강과 압록강, 두만강, 한강을 찾아 이름을 적어보세요.

내가 적은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답을 보지 말고 먼저 찾아본 후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

